

“남해안 발전특별법 제정·종합개발청 설립” 절실

김지사,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서 발전 비전 제시 지방 자율권 확대·정부 권한 이양 필요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영암 현대호텔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회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남해안권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은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박지원·이개호·서삼석·김원익·문금주 국회의원,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기업 및 기관·사회단체,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남해안권 발

전 비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남지사·경남지사·부산시장의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크쇼에 이어, 전문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 정책토크쇼에서 “남해안은 한태평양 관문으로 섬·해안·갯벌 등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과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중해에 버금가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 지방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2024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외빈들과 남해안권 발전을 기원하는 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례 없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

지도 설치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전남도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통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거듭나고 전국적 적용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부산시·경남도는 2022년 12월 김영록 전남지사의 제안으로 광양에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2023년 2월에는 경남 통영에서 당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

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전남·부산·경남)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는 등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도시철도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 모색

姜시장, 2호선 1단계 전 구간 걸으며 ‘대자보 도시’ 구상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시의회·전문가·시민단체·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7시간 가량 도보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7km 전 구간을 이동하며 도시철도와 연계한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답사는 보행자는 물론, 자동차 교통량, 자전거·버스 이용 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답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고광환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광주시의회 박필순·최지현 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전략추진단·신활력추진본부·통합공항교통공공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공정률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도로 포장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말에도 비자전거를 흘리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답사 중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토론했며, 대·자·보 도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광주시는 이번 현장답사 외에도 시민 의견을 모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자·보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현장답사는 각 계각층이 모여 어떻게 대·자·보 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도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대·자·보 도시는 우리가 갈 미래이고, 가야만 할 미래이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각계와 손을 잡고 시민 의견을 모으며 한 발 한 발 의미 있는 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경 기자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4명씩 등록

10·16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에 각각 4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29일 영광·곡성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국혁신당 장현·진보당 이석하·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출마했다.

곡민연합은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무소속 김기열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국민연합 최봉의·조국혁신당 박용두·무소속 이성로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정현대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규칙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지만 본선 도전을 포기했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는 10월3·15일 공식 선거운동, 11·12일 사전투표에 이어 16일 본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재정 기자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시의회 “정당 활동 큰 도움...전문성 부족·정치적 중립 위협 우려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김승남(67) 광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재선 국회의원, 30여년 이상의 정당 활동 경력은 후보

자의 정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업무 추진 시와 협력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이어 인사청문위원들은 “중앙정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중앙부처 및 각 기관·단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후보자가 도시공사의 사장이 돼 광주시 최대 규모 지방 공기업에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사청문위원들은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경험이 없고 도시 개발이나 도시 재생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부족해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어등산 관

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농협법 개정안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은 소통 능력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출신 사장이 선임돼 공공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할 것이라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경 기자

노진성 동구의원,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도전’

노진성(사진) 광주 동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29일 노 의원에 따르면 30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 오디션 선발제 ▲청년 의무 공천제 확대·신설 ▲청년 발전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정책 참여 위한 예산 전폭 지원 ▲민생과 실용적 ‘막사니즘’ 실현 등 5개 핵

심공약을 발표한다.

노 의원은 “청년 집단 지성의 시대 정신으로 새로운 청년 주권시대를 실현시키겠다”며 “청년을 대변하는 울림 있는 목소리로 앞으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노 의원은 한양대학교 졸업 후 전남대학교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제9대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안재영 기자



경철정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